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

## - 또래조성

글 · 이덕경 ddung102@hanmail.net

얼마 전, 모 중학교 졸업식에서 알몸 동영상유포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다시 학교폭력에 집중된 적이 있다. 이를 본 딸아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거야, 졸업식 때 밀가루범벅에 옷이 찢어진 상태에서 거의 반라로 다니는 건 늘 있던 거였는데, 항상 보도만 되면 더 떠들썩해진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정말 그렇다. 수면위에 있느냐 수면 아래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 늘 그 또래들 사이에선 있어왔던 일들이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통과의례처럼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린 폭력의 무감각에 간혀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어른이 되고 사회를 움직이는 구성원이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학창시절, 그 시기에도 다툼은 있었고 다툼이 있을 후 그 친구와 멀어지기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집단적인 따돌림과 더 거세진 폭력적인 현실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이의 해결을 위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갈등을 우리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직면해서 나와 사회의 변화,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관점과 방법을 익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다름의 인정과 다양성 존중, 다른 사람의 말 잘 들어주기, 나의 말 전달하기, 분노를 조절하고 감정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며, 모든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여 평화의 문화를 익히고 평화의 심성을 키워 삶에서 필연적인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갈등해결센터는 학교폭력예방의 노력으로 3자개입의 활동, 이른바 조정활동의 한국적 실현가능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색하게 되었다.

2006년 형사정책연구원과 모의 실험을 통해 회복적 사법 대화모임의 한국적 실현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2007년에는 경찰청과 협의해 6개 경찰서에서 경미소년범에 대한 대화모임을 진행했다.(10건 의뢰, 6건 합의) 2008년에는 가정법원 단계에서의 ‘화해권고’ 실천방안의 현실타당성을 검토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0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4건의 의뢰가 들어와서 대화모임을 했고, 2009년에는 갈등해결센터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나 학교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여주중에서 또래조정 활동을 진행중인 필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조기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져 ‘또래조정’ (학교조정)에 집중하게 되었다.

### 또래조성이란?

‘왕따문제’ 등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비단 교육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사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 교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비효율성은 사회나 학교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행동의 문제로 보고, 그 행동이 학교의 규칙에 어떻게 위반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응보적·처벌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기초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즉 두 학생이 싸움을 했을 때-그것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흔히 ‘싸웠다는 사실’ 그 자체로 징계를 함으로써 다시는 싸우지 않기를 교육한다. 다시 말해서 벌을 통해 예방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이라는 행동 이면에 ‘어떤 이유’로 싸우게 되었는지의 원인이 당연히 존재한다. 남들이 보기에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처 또는 싸움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원인을 드러내어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의 질서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가는 학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학칙이라는 틀은 또 한편으로 원인과 그 해결, 그리고 예방을 도모하기보다는 결과 중심의 '징계'가 강조되기 쉽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의 근본문제는 관계상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관계회복(restorative justice)을 위한 해결책을 당사자가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래조정의 기본적 취지이다.

즉 또래조정이란 함께 공부하는 동료 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학생들 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왕따를 당하는지, 괴롭힘을 당하는지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고, 그 해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고민이 있는 같은 학생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조정은 자율성, 중립성,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이 많은 롱아일랜드 브라이언트 고등학교에서 1983년 최초로 조정시스템을 학교에 적용해보기로 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조정훈련을 통해 또래조정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결과, 폭력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학생들의 태도나 인간관계가 향상되었다. 또래조정의 조정성공률(86%)은 전문조정(7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래조정의 학교 내 정착은 학교 내 폭력과 징계 문제가 감소되어 갈등과 갈등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의 향상시키고, 학교 내 갈등·분쟁의 해소를 통한 학생들 간의 관계의 회복력을 높인다. 사회적응력과 예비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 수행력을 높인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육 확대는 학교내 평화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 또래조정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또래조정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교, 학부모, 학생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학교의 실정은 어떤지, 또래조정이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사, 학부모의 지원이다.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고 난 후 구체적 실현을 위한 교육, 재정 및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또래조정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또래조정은 성립할 수 없다.

넷째,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조정은 문제해결 과정의 하나로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정자 훈련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조정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정의 의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다섯째, 효과적인 조정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래조정 제도가 학교 내 갈등해결을 위한 장치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의 모범이 있어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

여섯째, 창조적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조정의 경험을 기초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과 대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서구의 경우 갈등해결이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 갈등해결교육을 따로 진행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또래조정의 기본이 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는 조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조차 각 영역별 제도마다 내용과 적용이 다르고 당사자간 문제 해결 방법이 보편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상태여서 또래조정이라는 제도적 접근에 우선하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감수성 개발교육이나 갈등해결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또래조정 제도가 학교 갈등해결의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평화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또래조정 신청함  
▼ 또래조정 활동 중, 조정에 대한 의견 나누기.